

새터 반성폭력 내규 평가서

1. 우리는 왜 새터 내규를 만들게 되었나?

외부적으로 '어떤 계기로 새터 내규가 만들어지게 되었나?'라는 질문을 종종 들었을 것이다. 사실 성대처럼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는데, 어쩌다 새터 내규를 만들 생각을 했는지 돌아보면 명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 물론 새터 내규의 필요성을 부정하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애초에 새터 내규라는 구체적이고 실물적인 장치를 생각하게 된 문제의식에 대해 좀더 정교하게 되돌아 볼 필요가 있으리라 여겨진다. 그냥 만들어야 하니까 만드는 내규, 해야 하니까 하는 운동은 좀 곤란하지 않을까. 이에 대해 고민함으로써 '새터 내규가 너무 갑작스럽게 만들어 진 것은 아닌가'하는 의문에 대한 좀더 분명한 답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2. 제안에서 제정까지

2.1. 과정

중운위에서의 논의
확대일꾼수련회에서의 공청회
교양학교

확대운영위원회에서의 의결 — 2광장역(전혀 교양, 통통 안된 상태에서 열렸다.)

2.2. 새터 내규안에 대하여

성폭력의 개념 정의
새터 내규에서 규정한 성폭력의 예
사건처리원칙과 대책위,
각 과정을 거치면서 변화 혹은 첨가된 내용

동연.

3. 제정 이후 - 알려내기 작업과 대중적 반응을 중심으로

제작물: 토론용 자료집, 새내기대상 소책자, 포스터
각 단대 학생회의 역할 및 연성부연과의 관계

4. 2000년 새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나

이전 새터와 무엇이 달라졌나
실제 적용과정
각 단대의 상황

5. 작업의 과정: 연성부연내의 상황

역할분담은 어떠하였나, 각자 할 수 있는 일

단대기반 여성모임, 학생회(총여, 단대, 동연), 여성자치언론은 각자 어떤 방식으로 개입이 가능한가

6. 남겨진 과제 - 2001년 새터를 위하여

잘못된 인식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발생한 사건에 대한 처리방식: 성폭력 사건대책위의 구성과 운영을 중심으로

방향 이전에 토론을 둘러싸.

시간이 없어서(^^;) 텀 잡는 정도에 그쳤어요. 제가 생각한 건 이 정도인데 첨가할 건 첨가하고 빼는 건 빼면서 생산적인 논의를 진행해 보자구요. 어쨌든 한 고비 넘긴 연성부연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성대에 2011

총여
- 성폭력 운동은
경쟁으로.
- 학생회에게서
- 새터의 특성상
→ 필요성 대두
동연 - 불응했다.
이명환 - 계획은
있었으나 새터에
어떻게 할지 몰라.
계정에서 장기적으로
안정시키고 동연의
지원을 바탕으로
...
다양성향과
이로써 방향과
있고 다른다는
측면

사건수립 안됨.
우리학교의 정제를 읽고 있어야.(북방북)
할 수 있는 것들을 사용한 것 같음.
but 이후 성폭력에 대한 관심이
몰려져 내용 같음.
공청회도 가능
중운위도 2만 명자.
feedback이 잘 되지 않았으며, 그것을 위한 특별한 노력 X.
공청회 내용도 잘 이해된 않았음

* 각 단위 교양 ← 우리가 다성권
동여의 특수성 - 비선상향
각 단위 학생회가 잘 못 되고 있음. 해법방안 모색 X.
공대 - 방학특약가사것, 체육대회